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50 세종의 꿈은 '탄소중립도시'

- 행복청·세종시·교육청 탄소중립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세미나 개최
- 기후위기 대응하여 탄소중립적인 행복도시의 건설, 운영 및 교육 등 협력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세종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업무협약(MOU)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체결하고, 탄소중립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월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관내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행복청, 세종시, 교육청은 환경의 날을 맞아 기관 간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협약기관은 ▲탄소중립도시 건설·운영·교육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 수립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 건립 확대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행복도시 탄소중립 친환경 모델의 교육·해외 전파 ▲탄소중립 전시·학습공간 조성 ▲탄소중립 시범학교 교육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래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행정수도이므로 모범적인 친환경 도시로 건설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있다"라며 "정부의 '탈탄소 정책기조'를 행복도시에 모범적으로 구현하도록 세종시와 세종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탄소중립 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행복도시 내 건설을 책임지는 행복청,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청과 협력하면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보다 수월해질 것"라며 "탄소중립이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생의 조기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행복한 생태 시민 양성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협약에 이어서는 산·관·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세미나'가 진행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자들은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방향(김희산 세종시 과장) ▲탄소중립·녹색성장 교육방향(최복락 세종시교육청 장학관) ▲행복도시 탄소중립 추진전략(김승현 행복청 과장)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활동 방향(이채연 세종환경교육센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는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을 좌장으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협력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기네스북이 인정한 행복도시... 세계적인 디자인 특화 공공건축물의 장(場)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세종예술의전당까지 행복도시 대표 랜드마크 6곳
- 기네스북 등재부터 국내외 유수의 건축상 수상까지

본래 랜드마크란 탐험가나 여행자가 여러 곳을 둘러보다 특정 장소로 돌아오기 위해 표식으로 삼는 장소를 말합니다. 현대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건물이나 조형물 등 같이 그곳을 상징하거나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공간까지도 포괄합니다. 우리나라 송례문이나 N서울타워, 이집트 피라미드, 프랑스 에펠탑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일대 조성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도시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부세종청사의 옥상정원? 문화와 예술이 감각적으로 융합된 국립세종도서관이나 세종예술의전당? 바로 답하기 어려울 만큼 행복도시에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한 우수 공공건축물이 다수 존재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건축상을 수상하였고,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곳도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들 건축물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대학교 건축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어를 진행 중입니다. 우수 건축물 6개소를 돌아보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복도시 세종 공공건축물 대학생 투어'입니다. 산책로를 걸으면서 우수 건축물 체험도 할 수 있어 일반 국민에게도 환영받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판 ‘빌바오 효과’, 행복도시에서도 ‘꿈틀’

랜드마크 건축물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현상을 ‘빌바오 효과’라고 합니다. 1980년대까지 공업도시였던 스페인 북부 ‘빌바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철강 산업의 쇠퇴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시가 돌파구로 택한 것이 바로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분관 유치였습니다. 1997년 개장 이래 인구 40만의 소도시를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습니다. 이를 본받아 세계 많은 도시에서 대표 건축물 건립을 통해 문화저력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행복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전체를 현대건축의 기능과 심미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건축양식 박물관’으로 조성해왔습니다. 특히 설계 공모와 기술제안제도를 통해 공공건축물들을 도시의 대표 랜드마크로 특화하여, 지금은 건축 관련 전공자들이 21세기의 건축양식과 기술양식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상래 행복청장의 말처럼 행복도시 곳곳에는 저마다 독특한 디자인을 뽐내며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건축물들이 눈에 띕니다. 현대건축의 진수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건축여행의 최적지입니다. 대통령기록관 등 주요 건축물 위치는 호수 공원이나 중앙공원과도 가까워서 건학 중간에 피톤치드 가득한 휴식을 취하기도 좋습니다.

행복도시가 품은 독창적인 디자인의 우수 공공건축물들

먼저, 식물 187종 108만 본이 식재되어 사계절 색다른 풍경을 자랑하는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2016년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Largest rooftop garden)’으로 등재되며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면적 79,194㎡에 길이 3.6km로 15개 건물이 이어진, 축구장 11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이 정원의 디자인은 조선시대 성곽을 돌며 성 안팎을 둘러보는 ‘순성놀이’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전통적인 역사도시의 성곽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기록으로의 산책’을 주제로 건축된 대통령기록관은 국내보관함을 형상화한 국내 최초의 유리 큐브 건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첫 대통령 기록물 관리 전용시설로서 2016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12월 개관한 국립세종도서관도 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디자인 웹진 「디자인 붐」의 2013년 ‘올해의 도서관 톱(Top) 10’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아이코닉 어워드 계획 분야 수상, 2014년 레드닥 디자인상 본상 수상에도 빛납니다. 이 도서관은 3차원 입면에 2개의 자연곡선을 교차한 건축 조형미로 예술성을 살렸습니다.

세종예술의전당은 행복도시 세종이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지난 2021년 한국문화공간상을 수상했습니다. 지하 1층·지상 5층에 연면적 16,000㎡이며, 1,071석에 달하는 대극장과 최첨단 무대시설을 갖췄습니다. 공연 특성에 맞춰 소리를 풍성하게 전달하는 잔향가변 시스템과 총 513개의 입체적인 무대조명회로를

통해 오페라, 뮤지컬, 오케스트라, 발레,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예술을 폭넓게 즐길 수 있습니다.

미관과 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은 행복도시 우수 공공건축문화

행복청이 올 3월 준공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세종어린이박물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자연과 함께 어린이가 성장하는 공원 속 박물관’으로, 국내 최초 조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의 5개 개별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들의 창의력 향상과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전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며,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4,891㎡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아직 일반인 출입에는 제한이 따르지만, 대학생 투어의 경우는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 공공건축물들은 그동안 디자인이나 기술적 특화 뿐만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를 도모한 친환경 생태 건축물로도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생태면적률을 35% 이상 확보하고, 외벽과 지붕, 옥상을 녹화해 열섬 현상 완화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입면 계획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통한 에너지 자급, 패시브 건축 기술 도입 등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제로(Zero) 구현에도 힘썼습니다.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미래, 도시 상징 넘어 ‘국가 브랜드’로

공공건축물은 그 자체의 가치는 물론이고, 향후 건립될 건축물들이 나아갈 방향과 도시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행복도시에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공공 건축물들에도 시선이 모아집니다.

국립박물관단지의 경우 세종시 S-1생활권 부지에 연면적 81,555㎡ 규모로 2027년까지 5개 개별박물관과 2개 통합지원시설이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궁궐과 마당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여, 단순하지만 다양한 공간 연출을 적용하고 있어 또 하나의 기념비적 공공건축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문체부가 세종시 이전을 발표한 국립민속박물관까지 연계된다면 문화와 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도약을 위해 행복도시에 건립이 추진 중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또 이를 포괄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등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건축물의 건립 측면에서도 신기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래 행복청장은 “행복청은 앞으로 행복도시만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공건축문화를 많은 사람이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대한민국 공공건축물에 미래 건축가들을 비롯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꾸준한 혁신과 발전을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행복청, 대학생 대상 공공건축물 투어 운영

- 건축 전공 대학생에게 행복도시 건축물 체험과 학습의 장 제공
- 정부세종청사, 대통령 기록관, 세종예술의전당 등 우수 공공건축물 견학
- 6월 9일부터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 시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투어 및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축 전공 대학생에게 행복도시의 우수한 공공건축물 견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도시의 비전과 방향성 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견학 일정으로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대통령기록관과 국립세종도서관, 한국 문화공간상을 수상한 세종예술의전당 및 최근 준공된 세종어린이 박물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전국 각 대학에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https://naacc.go.kr>) 알림소식(알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업국장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번 공공건축물 건축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이 행복도시의 우수건축물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향후 대한민국 공공건축물 건설에 미래 건축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견학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1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 2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대통령기록관
- 3 국립세종도서관 등의 공공건축물을 견학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은 '23.6.9.(금)~'23.7.7.(금)이며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홈페이지 알림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청, 수요자 중심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 마련 용역 추진

- 6월 14일, 행복도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수립 용역 착수
- 임대주택 수요 분석을 통한 임대주택 유형 및 적정 공급 비율 제시
- 미계획 생활권(5-3생, 6-1생 등) 주택공급계획 수립 시 반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월 14일(수)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행복청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행복도시 내 전체 공동주택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용역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평형 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 등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복도시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으로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용역 기간은 6개월이며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합니다.

행복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주거 만족도 조사 및 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여 공급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임대주택 유형 및 적정 공급 비율을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미계획 생활권(5-3생활권, 6-1 생활권 등)의 주택공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전망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도시~공주(3구간)도로 2026년 개통

- 행복청, 행복도시~공주3구간(제2금강교)건설사업 입찰 공고
- 총사업비 385억 원 규모, 총연장 513.7m, 폭 9~12m 교량 신축
- 행복도시와 공주시 교통거점 연결로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공주 3구간(제2금강교 건설) 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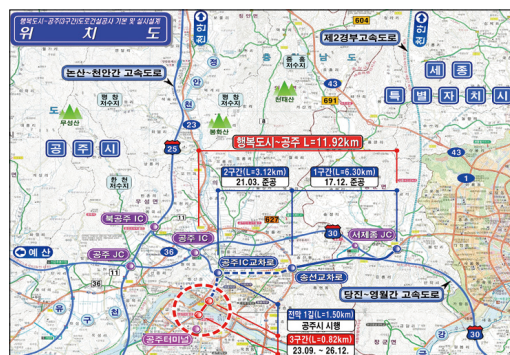
행복도시~공주 3구간 도로 건설 사업은 노후 된 금강교를 대체하여 공주시 신관동과 금성동을 연결하는 제2금강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행복청과 공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제2금강교는 총연장 약 513.7m, 폭 약 9~12m 규모의 교량으로 총사업비는 385억 원이 투입됩니다.

행복청은 6월 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입찰서 제출 마감은 6월 28일입니다. 8월 중에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입찰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행복도시~공주(3구간)도로가 준공되면 기존 금강교의 교통체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두 도심 간 원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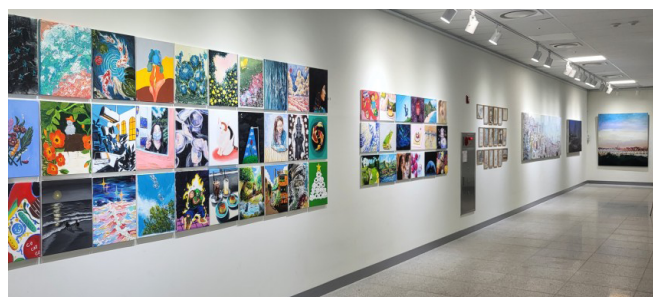
인적, 물적 교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충청권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공주시에서는 제2금강교가 건립되면 기존 금강교(등록 문화재 232호)는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해 보도교 전용으로 전환하여 공산성 야간 탐방로 및 관광객 관람 장소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불빛 the sign’ 전시회

-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미술관으로 변모, 6월 7일부터~7월 15일까지
- 홍익대 김민영 교수와 제자들이 함께 참여, 다양한 작품으로 볼거리 가득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 시민을 위한 미술관으로 변모하여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월 7일(수)부터 7월 15일(토)까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김민영 작가의 ‘불빛 the sign’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행복청이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추진하는 세 번째 전시행사로 홍익대학교 김민영 교수와 정서호 학생 등 제자 63명 함께 하였습니다. 김민영 작가는 ‘불빛 the sign’을 주제로 밀집된 도심의 불빛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표현한 작품 22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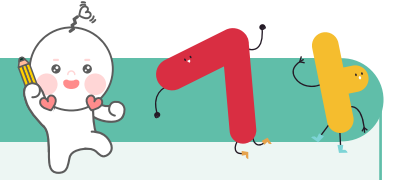
전시하였고, 홍익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은 ‘visionary’라는 주제로 다양한 색채와 개성 가득한 작품 46점을 전시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은 지난해 8월 개관하여, 청사 입주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수영, 필라테스, 헬스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신인 작가 작품 전시회 등 문화 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작품 감상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인근 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전시 기회가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작품 전시 공간을 제공했다는데 그 의미가 큼니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신인작가와 인근 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회 등 전시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 전시행사를 추진하여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 시민들의 체육 활동과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이와 한글교시(6교시)



알쏭달쏭 우리말 바르게 쓰기

- ‘파투’와 ‘파토’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그 게임은 파투가 나고 말았다 (O)
- 그 게임은 파토가 나고 말았다 (X)
- ‘좋을는지’와 ‘좋을런지’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무엇이 좋을는지 잘 모르겠다 (O)
- 무엇이 좋을런지 잘 모르겠다 (X)

* 5교시 숙제 코너 정답 : 물 흐름양에 따라 다르다,
분위기 좀 띄워봐



숙제 코너

- ① ‘세다’와 ‘쇠다’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온 가족이 모여 명절을 세다 ()
- 온 가족이 모여 명절을 쇠다 ()
- ② ‘쩌쩌하게’와 ‘째째하게’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너무 쯔쯔하게 굴지 마라 ()
- 너무 째째하게 굴지 마라 ()



사자성어 배워가기

천 재 일 우
(千) (載) (一) (遇)

천 년에 한 번 만날 정도로, 좀처럼 얻기 어려운 좋은 기회



사진으로 보는 행복도시, 빈칸채우기 퀴즈 이벤트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어느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세종 행복도시의 환상형 도시구조를 바탕으로 한 ‘환상의 시간여행’이라는 설계 개념을 담은 **ㄱ ㄱ ㅂ ㅎ ㄱ**는 다른 말로 이음다리로도 불린다.

기고문

‘행복도시’의 장르는? 키워드는 ‘힐링’ 도시특화, 디자인으로 말하는 서사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그래픽디자이너 솔 바스는 “디자인은 시각으로 보는 생각”이라는 말을 남겼다. 디자인이란 단순히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까지도 표현한다는 뜻이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쾌적하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은 외형적 아름다움과 함께 그 속에서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의 수준을 보여주기도 한다. 디자인이 곧 그 도시의 정체성이자 품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세종시 일대에 조성 중인 국가계획도시다.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이자 세계적 명품도시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도시미관과 기능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2013년부터는 도시경관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와 건축을 통합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단독주택용지는 부지공급 단계부터 구역별로 한옥형, 유럽형 등 고유한 테마를 부여하여 단독주택의 개성과 권역의 통일성이 어우러지게 하였다. 고운동(1-1생)에 조성된 제로에너지타운은 자연환기와 태양열발전을 결합한 주택단지로, 텃밭과 녹지공간이 생태순환은 물론 주민소통의 장(場)으로 활용되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그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3차 제로에너지타운을 해밀동(6-4생)에 조성할 예정이다.

행복도시에는 또 농업을 연계한 여가와 치유공간인 ‘케어팜 타운’도 들어설 예정이다. 케어팜 타운이란 도심 내 농장에서 체험하는 각종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몸과 마음,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에 ‘주거’를 접목한 형태의 마을을 뜻한다. 행복청은 네덜란드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내실 있는 체험 프로그램 마련과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증가하는 청년주거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특화단지 조성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물량위주의 주택공급으로 인한 유사한 디자인과 답답한 경관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주택 단지를 집적화하는 특화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가장 먼저 설계공모를 실시한 새롬동(2-2생)에는 순환 산책로와 저층 주거동을 조성하여 단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스카이라인 조성과 측벽발코니 설치 등을 통해 입체적인 주거동을 형성하였다.

또 상업시설과 광장,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동주택 등 생활권 전체를 통합 계획하여 이웃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술작품 조형 및 전시 공간 설치를 통해 전체적 미관 수준을 한껏 끌어올린 해밀동(6-4생), 금강과 괴화산을 배경으로 저층형 입체녹화 주거동이 들어서 천혜 자연의 품취가 느껴지는 ‘창조적 생태마을’ 반곡동(4-1생) 등 각 생활권별로 특색 있는 공동주택 특화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행복도시만의 친환경과 미래지향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디자인의 통일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단지 간 자연스러운 연결과 유기적인 기능 연계를 통해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점도 자랑거리로 꼽힌다.

여기에 행복청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다솜동(5-2생)을 ‘보행중심 헬스케어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소규모 블록 및 저층고밀 공동주택’ 컨셉으로 특화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공모를 준비 중이다.

행복도시의 역사가 짧은 도시다. 유구한 세월을 물감으로 자신만의 색을 입혀온 타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른다. 또 아직 도시건설이 완료되지 않아 전체적인 모습을 한 눈에 확인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행복청이 시도해온 다양한 테마의 도시특화사업의 성과가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030년 도시가 완성된 후 행복도시의 모습은 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균형 있고 조화로운 경관을 뽐내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행복도시 세종', 탄소중립을 구호가 아닌 현실로

탄소중립 이행·평가·환류체계로 행복도시 탄소감축 가속화

최근 국내 주요 대도시의 '탄소중립'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작년 12월 6일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고, 부산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7% 감축을 시작으로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발맞춘 2050년 동반 달성을 내세웠습니다.

중소도시들도 속속 동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경북 안동시가 '2050 탄소중립 선도 도시 안동'을 선언하고 실천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전남 목포시의 경우는 올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탄소배출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2016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탄소제로(Zero)'는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ית따는 탄소중립 선언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세종시 일대 조성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건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미 2021년 6월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마련하고, 세종시 및 LH와 업무협약 체결, 관련 민·관·연 협의체 출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2021년부터

"행복도시 탄소발자국 줄이자" 본격 시동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때는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이때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중간 목표도 밝혔습니다.

이에 행복청은 당시 도시계획에 신규 생활권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2017년 기준 1인당 2.6톤에 달했던 연간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42% 줄인 1.5톤으로 감축하고 최종적으로는 순배출량 '0'까지 도달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 전에도 행복도시는 에너지 공급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탄소 친환경에너지도시'를 표방해왔습니다.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태양광 도입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다양한 공급시설을 확충하였고, 빗물의 선순환을 중심으로 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수소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등 여러 방면에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 같은 행복청의 노력은 2021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대한민국' 발표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해 9월 행복청은 세종시 및 LH와 '행복도시 탄소중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다음 달에는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11월에는 행복청과 세종시, LH와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관건은 탄소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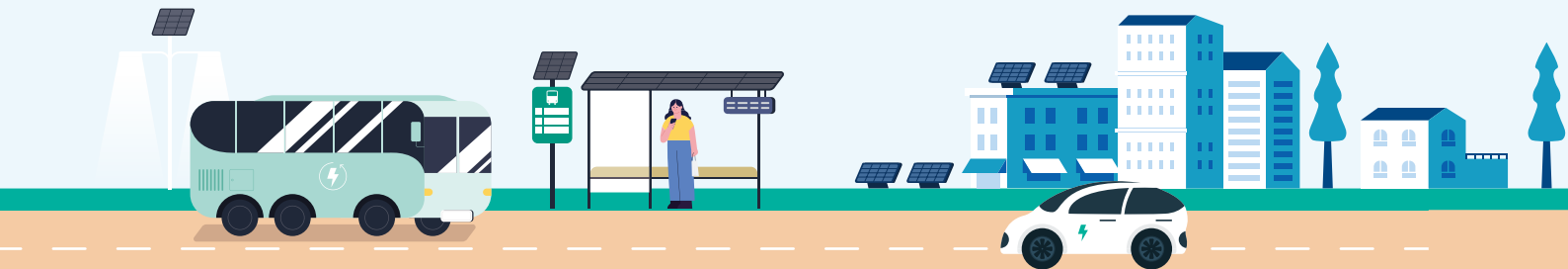
"이행·평가·환류" 체계의 안착

행복청이 밝힌 올해 탄소중립 추진 주요 과제는 '실행계획 수립, 탄소배출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수소도시 모델 마련,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등입니다.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 평가입니다.

가장 먼저, 에너지전환과 건물·수송 등 '부문별 탄소중립 실행 계획' 수립이 꼽힙니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필요량, 제로 에너지건축물 단계별 등급 상향, 친환경차 보급 확대방안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행복청은 금년 중 행복도시 탄소중립 협의체에서 이를 최종 확정하면 관련 세부계획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과제의 진행현황과 탄소 감축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탄소배출원의 위치와 탄소배출량 파악이 가능해져 맞춤형 탄소 감축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많은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 제약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한계에 부딪힌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지구가 계속 뜨거워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행복청은 탄소중립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만들어 탄소감축을 가속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탄소감축 이행계획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탄소감축 이행능력을 강화한다면, 탄소중립 실현이 '구호'가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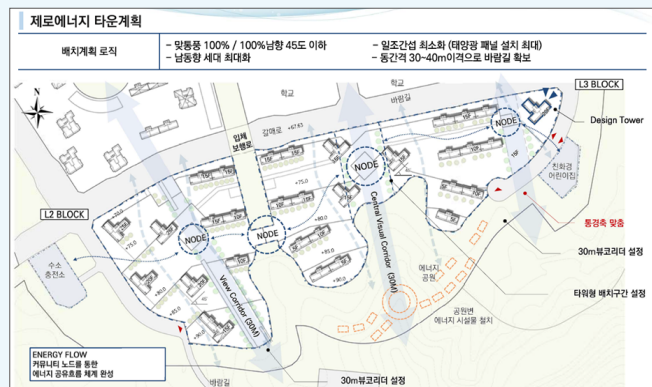
미래지향적 '수소도시' 모델과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행복청이 행복도시에 적합한 수소도시 모델 마련에 나선 것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도심지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도시는 LNG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전기와 열에너지를 공급해왔습니다. 또 2011년부터는 자전거도를 비롯한 수질복원센터, 폐기물매립장 등 공공 유향 부지에 약 1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해 연간 1만여 톤의 CO₂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무엇보다 운용 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 이를테면 태양광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발전시간은 일조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을 청정 '수소'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행복도시에는 수소연료전지 약 5.5MW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도 한창입니다. 수소충전소 2개소가 조기 완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 신규 충전소 부지도 도시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행복청은 금년 중 '행복도시 수소생태계 모델'을 마련하고, 구체적 이행방안까지 제시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제로에너지도시를 지향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도 병행 추진됩니다. 그간 행복청의 태양광 공모사업에 더해 이제는 사업모델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제로에너지 타운 계획(에너지 자립률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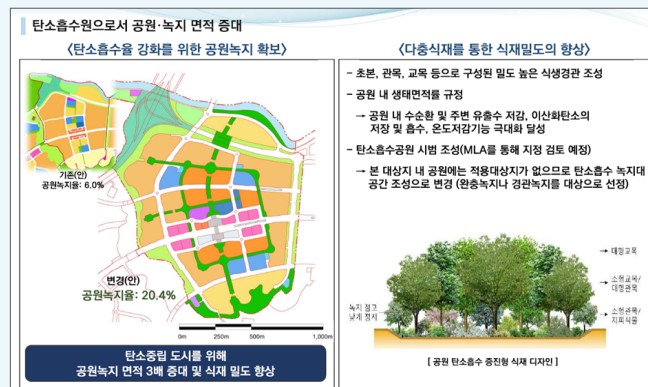
행복도시의 탄소감축 성과, 머지않아 가시화

행복청은 도시구상 단계에서부터 각종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해 왔습니다.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이 대표적입니다. 저영향개발이란 빗물의 지하침투와 저류능력을 향상시켜 도시열섬과 수질악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 개발기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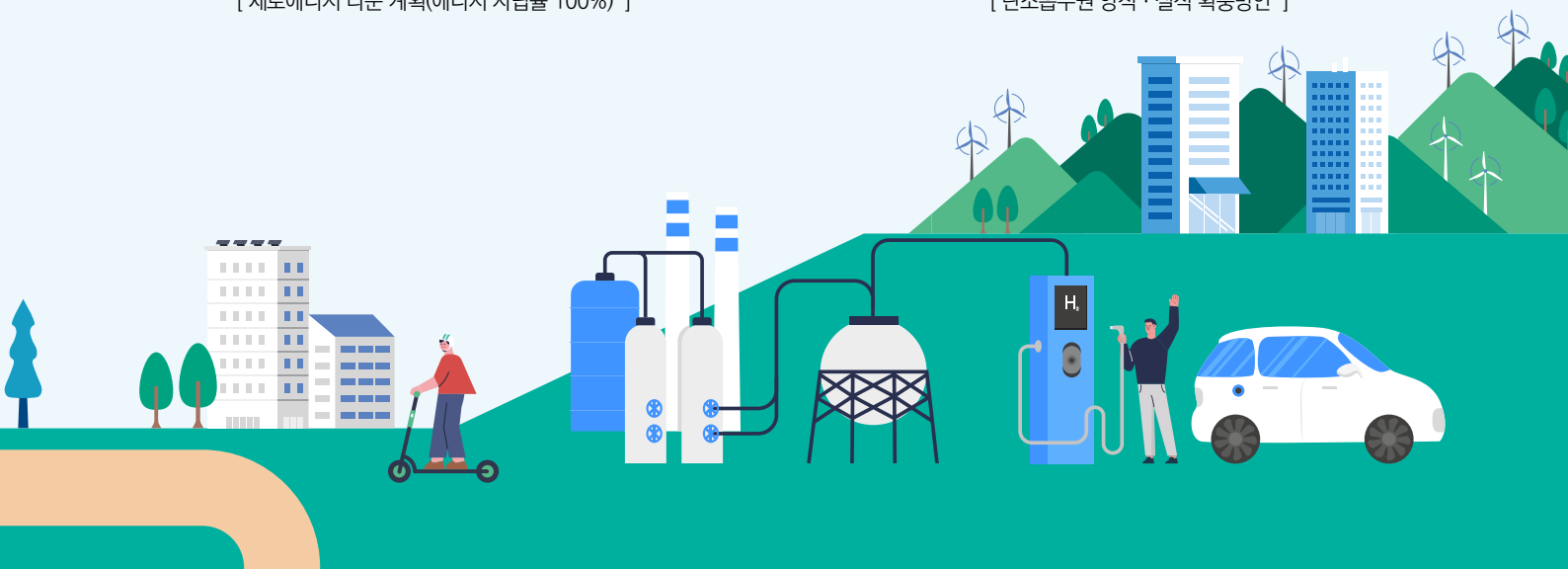
앞서 행복청은 단계별 지침에 따라 면적 1,000㎡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별 빗물 관리 목표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전문가 사전협의제 운영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 같은 전방위적 노력을 바탕으로 행복도시는 국가목표보다 빨리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성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당초 도시건설 4대 비전 중 하나였던 '친환경도시 조성'도 자연스럽게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게 하는 등 탄소 감축 정책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행복청은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보다 앞서(現, 공공 5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임대 공동주택 조성 등을 추진하며 건축물 탄소감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감축 정책에 맞춰, 때로는 보다 선도적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노력하며, 행복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탄소흡수원 양적·질적 확충방안]



행복도시 세종, 인근도시와 '라이벌' 아닌 '파트너' 충청권 광역상생발전 건인

행복도시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

2027년 8월 개최,
150개국 1만 5,000여 명 참가

전 세계에 알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행복도시권의 매력과
성장잠재력



충청권 '첫'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남·충북)의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개최는 광역 지자체들이 합심해 국제대회를 유치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이로써 시·도의 경계를 넘어 충청권을 아우르는 초광역도시(메가시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받은 것이란 평가입니다. 나아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 간 라이벌이 아닌 상생 파트너로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국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회 유치를 천명한 때는 2020년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4개월 만인 작년 1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경쟁상대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치고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대회기간은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잠정)까지이며, 150개국 선수단과 임원, 미디어 관계자 등 1만 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충청권 광역 지자체들이 뜻을 한 데 모은 것은 단순히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를 계기로 중부권 주민의 생활과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메가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세종시의 경우 출범 만 10년 만에 범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공동 유치함으로써 행복도시를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가 큼니다.

행복청-충청권 광역지자체, 상생발전 위해 손잡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 간 경쟁이 지역(Megalopolis) 간 경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오래 전부터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대두되어왔습니다. 나아가 근래에는 단일 도시를 집중 육성하기 보다는 각 거점도시를 잇는 초광역권 형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결과입니다.



2018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청권 광역 지자체들은 최고정책협의기구인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상생발전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2019년 4월부터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운영하며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공동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협력의 촉매제로서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2019년 5월 행복청 및 충청권 4개 시도가 체결한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및 상생발전 협약'은 지난 해 12월을 기점으로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효율적인 시행 및 관리, 나아가 성공적인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2027년 12월말까지 그 효력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초광역권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탄탄'

2019년,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추진과 함께 행복도시권 1차 10대 상생협력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주공항 광역버스 노선확대, 대중교통 통합 환승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청주공항 연결도로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 국가계획 반영 등이 1차 사업의 성과입니다.

이어서 2021년 9월 제2차 상생협력 선도 사업으로 행복도시권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문화관광벨트 조성, 관광도로 계획 수립, 기후위기 대응 통합거버넌스 마련, 수소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MICE(복합 전시 및 이벤트)산업 육성 등이 꼽혔습니다.

현재 행복청은 2022년 2월 「국토기본법」에 반영된 초광역권계획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행복도시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이 인근 시도와 초광역권계획을 공동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금년 1월 31일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공식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각 시도의회의장,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을 갖고 초광역도시 건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단순히 행정과 정책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리적 특성과 산업여건에 특화된 각종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쟁력과 지방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충청권의 하나 된 열망 “한국형 메갈로폴리스” 실현을 위해서는

“당초부터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시작된 사업인 만큼, 그동안 인근도시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광역상생발전을 꾸준히 도모해왔습니다.” 행복청을 이끌고 있는 이상래 청장은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따라서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초광역도시의 탄생은 지역 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균형발전의 가치와 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물적·인적자원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뒷받침할 교통망 등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서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의 성공여부야말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의 시금석이 되는 셈”이라고 밝힙니다.

실제로 행복청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도시계획 조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청 내 조직인 광역상생발전추진단이 대회지원 총괄 및 조정을 맡아 행복청~조직위~충청권 4개 시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종합체육시설, 선수촌 및 제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대회 준비 관련 민관 협력사항 조정 및 의사결정, 상생협력사업 추진, 조직위와의 소통 등을 위한 충청권 광역 거버넌스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 행복도시권 문화관광협의회를 개편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경기장 주변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복합 스포츠복합플렉스 조성, 광역노선 개발 등의 추가사업 발굴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충청권 메가시티, 즉 ‘한국형 메갈로폴리스’를 염원하는 충청인의 하나 된 의지와 열망이 이번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는 물론 행복도시권의 매력과 성장잠재력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지역경쟁력을 넘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충청권 초광역도시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

국가보훈부

여행가는 달

6월은 혜택가득 여행가는 달!

해보고싶은 여행을 검색하세요

지금 **여행가는 달** 을 검색해보세요

<p>교통비 부담없이 떠나보기?</p> <p>여행가는 달 교통혜택</p> <p>KTX 및 KTX-신호선 50%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료 50% 할인 SRT(루이스) 50% 할인 편도 10~40% 할인</p>	<p>가성비 인생숙소 찾기?</p> <p>여행가는 달 숙박혜택</p> <p>전국 숙박시설 할인 30%~40% 할인 한국관광 숙박인증소 할인 최대 50% 할인 여행장 예약 시 포인트 10% 할인</p>	<p>6월 지역별 여행정보는?</p> <p>여행가는 달 놀거리혜택</p> <p>17개 지자체와 이따기 기업-업체에서 제공하는 6월의 특별한 여행특대 이벤트</p>
<p>매력적인 국내여행상품 찾기?</p> <p>여행상품 특별 기획진</p> <p>올리고 싶은 대한민국 국내여행 여행 패키지 상품 30% 할인 (일정 상품)</p>	<p>요즘 유행하는 여행은?</p> <p>2023 여행 트렌드란</p> <p>올해 주목할 만한 여행트렌드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p>	

여행가는 달의
통일한 할인혜택과 서비스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법제처

[2023. 6. 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예) 2023 - 1993 = 30세

Q2.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3.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 나이
쉽게 확인하기

만 나이로 씁니다
만 나이로 씁니다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안전대전원

국민과 함께 안전 한국 후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비후련

[1회차] 2023. 6. 5. (월) ~ 6. 16. (금)
[2회차] 2023. 8. 28. ~ 9. 8. / [3회차] 2023. 10. 23. ~ 11. 3.